

취업 후기를 작성함에 앞서, 석사 기간 및 취업까지의 과정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서화정 교수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미디움이라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코어 연구 개발팀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에 이용하고 있었던 하이퍼레저 패브릭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7~80명 규모의 회사인데, 여러모로 타이밍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구직에 있어 저는 솔루션 기업 위주로 진행했었습니다. 대기업으로는 흔히 '네카라'로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 및 그 계열사들을, 그리고 여러 스타트업들을 탐색하였었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상반기 진행한 네이버 워크 채용연계형 인턴쉽의 경우 면접 중 라이브 코딩 테스트 문제를 풀지 못했고, 카카오 플랫폼기술팀 면접에서는 지원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었습니다(기술적인 질문은 차치하고, 인사시스템 개발 파트였는데 인사시스템에 대해 설명해보라는 질문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었습니다). 면접들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를 확실히 알고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문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유심히 봅니다. 실제로 이후 진행한 한 스타트업의 면접에서는 지원 동기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 열심히 준비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웹 개발 직군 위주로 지원했었습니다.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고루 지원하였으며, 한국에서 취업하실 생각이라면 백엔드는 스프링(주로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 RDB/NoSQL,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React (+Next.js) 위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각각 자바/코틀린과 자바스크립트/타입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잘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백엔드 개발자라고 해도 간단한 프론트엔드 개발은 할 줄 알아야 하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프로젝트도 2~3개 이상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백엔드는 Node.js, 프론트엔드는 Angular가 주력이었는데 너무 비주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원 가능 분야가 한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서, 가능하다면 다 익혀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개발 직군을 희망하신다면 코딩 실력은 무조건적으로 좋아야 합니다. 적어도 프로그래머스 3단계까지는 쉽게 풀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접했을 때 해결 과정을 빠르게 떠올리고, 그것을 최대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발 직군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가리지 않고 코딩 테스트 혹은 시스템 구현 과제를 필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관문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면접을 볼 수 있기에, 알고리즘 공부 잘 해 두시길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상시/수시 채용의 경우 신입은 잘 뽑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공채도 경력 위주로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이상한 중소기업으로 눈을 내리시면 안됩니다. 열심히 준비하면 언젠가 결실을 맺을 겁니다. 저는 웹 개발 직군에서는 계속 죽을 췌던 것에 반해 현재 입사한 미디움은 아주 수월하게 채용 과정을 진행했었습니다. 2시간에 걸친 면접을 보면서 느낀 것은 기술 스택 및 회사의 요구가 저와 완전히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타이밍이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의 다른 구직 활동들을 생각하면 살짝 허무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제가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공부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미디어와의 접점이 생긴 것이니 결국 좋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대기업들을 준비할 당시 스타트업은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스타트업을 지원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코딩 테스트는 오히려 대기업보다 더 어려웠고, 기술 면접에서 물어보는 내용 또한 대기업과 차이가 별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대기업보다 더 여유가 없으니 완성된 인재를 찾는 것에 더 급급하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혹시 '대기업이 안돼서' 스타트업에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진다면 재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스타트업을 가기로 했다면, 회사를 고를 때 연봉, 복지, 직원 수, 성장 가능성 등을 잘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블라인드나 잡플래닛 등을 많이 참고했었습니다.

IT 개발자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직군입니다. 비개발 직군에 비해 처우가 좋다면 분명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개발자 선호 사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만약 언젠가 꺼질 거품이라고 생각한다면 거품으로 남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성장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저는 블록체인 신입 개발자로 취업을 하지만, 10년 뒤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어떻게 될지, 데이터 트랜잭션을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등장하진 않을지, 결국 제가 무엇을 먹고 살고 있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주력 파트만 계속 파고드는 것보다 백업을 몇개 만들어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Express 개발자라면 Nest.js나 파이썬 장고 등의 기술을 익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개발 직군을 희망한다면 일단 뭐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누군가의 훈수를 둘 정도의 레벨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구직 중이시라면 원하는 회사에 꼭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